

강진 하맥축제 “어메이징”

외국인 관광객들 80여명 1만원에 무제한 맥주 ‘환호’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강진 많이 알리고 찾겠다”



“강진 하맥축제는 놀라운 그 자체, 어메이징이에요.”
지난 2일 제1회 강진 하맥축제 마지막날 강진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자 감탄이다. 이들은 여행사 ‘여행공방’의 안내로 하룻밤 푸소 민박을 예약하고 축제장을 들렀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유학생 나탈리는 “친구와 한국 여행을 고민하다 여행을 통해

강진을 찾았다”며 “가수들의 공연과 DJ들의 흥겨운 진행속에서 정말 K-POP의 매력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브라질에서 왔다는 비아트라스는 연신 1만원 짜리 무제한 맥주를 들이키며 ‘치얼스’를 외쳤다. 역시 친구와 함께 왔다는 비아트라스는 “강진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열정은 브라질도 능가할 것 같다”면서 “오늘의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출신의 드루종은 “학기 내내 공부

를 따라 가느라 힘들었는데 강진에 와서야 힐링 됐다”면서 “하룻밤 강진에서 자고 서울로 돌아가면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안내를 맡은 이란 출신의 가이드 엘리는 “지난번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 등 여러차례 강진을 왔지만 나도 즐겁고 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강진을 더욱 많이 알리고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행을 기획한 여행공방 이용훈 이사는 “남도관광 1번지 강진과의 인연은 오래됐다”면서 “어쩌면 작은 군 단위이지만 축제 기획력과 운영 능력, 군민들의 매너 등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강진 방문 여행상품을 만들어 외국인들의 강진 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진 하맥축제장을 찾은 외국인은 미국 3명, 남미 5명, 아시아 23명, 유럽 42명, 아프리카 5명 등이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채성 마케팅 팀장은 “강진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인프라인 푸소 숙박, 오소스테이 체류, 공연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 풍광이 잘 갖춰져 있다”면서 “강진관광의 마중물로서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 올해 45톤 생산

타지역 포도보다 당도 1~2브릭스 높아 인기

청정한 해안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포도알이 탱글탱글하고 당도가 높은 ‘완도자연그대로 노지 해변 포도’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완도 해변 포도는 총 17개 농가(16ha)에서 캠벨 포도, 샤인 머스켓, 거봉 등이 재배되고 있다. 올해는 45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는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완도 해변 포도는 당도가 다른 지역 포도보다 1~2브릭스(Brix) 높은 평균 15~17브릭스(Brix)로 단맛이 큰 게 특징이다.

포도는 택배 주문 또는 관내 마트를 이용하거나 완도군 군외면 해안 도로를 이용하면 당일 수확한 포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샤인 머스켓 등 인기 있는 품종 생산량을 확



대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완도 해변 포도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독작물팀(061-550-5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 개최

목포시,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 공동 대응

진도군이 수산물의 안정성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진도읍에 위치한 진도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진도군,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목포시, 목포지

방해양수산청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과 수산물 판매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의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진도수산물시장을 둘러보며 수산물을 직접 구매해 수산물 소비를 독려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미경산 한우로 고급육 한우시장 공략

해남군이 ‘미경산 비육우’ 생산을 통한 최고급 육 한우 시장에 도전한다.

미경산우는 송아지를 한 번도 생산하지 않은 암소로, 부드러운 육질과 뛰어난 풍미로 최근 고급육 한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일반 한우에 비해 17% 가량 높아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정부의 한우 수급조절 대책 중 하나인 암소 감축사업과 연계해 암소사육 비율이 높은 해남 한우 농가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판갈한우 미경산우는 해남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했으며, 36개월 이내 도축된 B1 등급 이상을 출하할 계획이다.

특히 사육과정에서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를 먹고, 한우 개량을 통해 차별화된 고급육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사양 단계별 브랜드 전용 사료배

합 기술 개발과 지역에 최적화된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된 사료 급여 시험을 통해 사양 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브랜드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군, 축협, 생산자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매주 1회 실무협의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 나가고 있다.

미경산우 한우육성 사업은 해남진도축협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참여 농가를 신청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1일 옥천면 소재 축협 가축시장에서 군과 축협, 한우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경산 한우 시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해남에서 사육된 미경산우의 맛 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내 한우농가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협



력에 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21년부터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 ‘해남판갈한우’ 상표를 개발하고, 한우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은 전남 3위에 해당하는 한우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핵심 소득원이지만 최근 한우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해남판갈한우의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장점검

장흥군은 5개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니어촌노인웰빙라이프행복드림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남도소리남도아이 등 14개 서비스를 640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8월 11일부터 시작하여 8

월 30일 마무리가 됐다.

서비스 제공기관 5곳을 대상으로 제공기관 등록기준 준수 여부, 서비스 제공사실 적정성, 제공인력 및 이용자 관리, 회계처리 적정성, 전자바우처 이상결제 사항 등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